

지역 소식통

정읍시, 상하수도요금

고액 체납자 특별 징수 나서

정읍시가 이달부터 4월 말까 지 상하수도 체납요금에 대한 상습·고액 체납자 일제 정리 기간을 정하고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특별 징수 활동에 나선다.

이번 특별 징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요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성과 지방공기업의 재정 건전성 개선을 위해 추진된다.

시에 따르면 2월 현재 기준 상하수도요금 중 3개월 이상, 50만원 이상 고액 체납은 4억 9,500만원에 달한다.

시는 '정읍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44조에 따라 수도 요금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정수 처분을 할 수 있으나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수용가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단수 등의 행정조치를 유보했다.

시는 체납 건수 3회 이상이거나 50만원 이상 등의 장기·상습 체납자에 대해 일괄 체납고지서를 발송하는 등 요금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내년도 하수도분야

신규사업 예산 확보 총력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가 내년 하수도 분야 신규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해 연초부터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신규 사업으로 흥덕부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100억원), 공음 하수관로 정비사업(89억원), 고창처리구역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58억원), 고수 하수관로 정비사업(132억원), 흥덕 하수관로 정비사업(44억원) 등 총사업비 423억원 규모의 사업이 신규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 등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고창군청 김준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연초부터 환경부를 비롯한 관련 중앙부처에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서해안 · 새만금 고창이 주도

고창군, 국립세계유산센터 건립 등 차기정부 국가예산 건의사업 140건 확정

"차기정부 서해안·새만금 광역경제권은 고창이 주도한다"

전북 고창군이 차기 정부에 국가예산 건의사업으로 국립세계유산센터 건립 등 140건(총사업비 837억원 상당)을 확정했다.

22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고창군수 주재로 '2023·2024 국가예산 보고회'가 열렸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해 역대 최대 국가예산 확보(1661억원) 성과를 발판삼아 차기 정부 출범 이후 마련될 국정과제 등에 지역 사업을 담아내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내년 국비 확보대상 사업으로

95건(총사업비 6488억원), 2024년 확보 대상 45건(1838억원)을 확정했다.

군은 고창갯벌의 유네스코세계자연유산 등재에 따른 한국의 갯벌 국립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315억원)에 집중한다. '고창갯벌 식생조립(150억원)', '병사십리지구 연안정비(376억원)' 등도 꼭 국비를 확보해야 할 핵심사업으로 제시됐다.

이에 더해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고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150억원)', '심원면 소재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100억원)' 등과 함께 농생명산업과 역사문화관광산업의 다

양한 사업들이 준비되고 있다.

고창군은 3월 대선이후 본격적인 예산확보 활동에 돌입할 방침이다. 20대 대통령 취임이후 중앙부처 업무보고에 관련 사업들이 담길 수 있도록 하고, 세종시 현지에서 전략회의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고창군수는 "정권초기 '메가시티' 등 각 지자체간 치열한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고창만의 강점을 개발하고, 각 사업별 총출한 전략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가 귀농·귀촌인 지원체계를 기반으로 농촌 인구 유입 도모와 활력 회복에 나선다.

'귀농인 성공 정착' 적극 지원

정읍시, 귀농 보조·융자사업 내달 4일까지 읍면동 방문 접수

정읍시가 귀농·귀촌인 지원체계를 기반으로 농촌 인구 유입 도모와 활력 회복에 나선다.

시는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새로운 인생 설계와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귀농인들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생산 활동과 주거 공간 마련 등 영농 정착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농업자금을 활용해 신용·담보 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대출금리는 연 2%이며, 상환방식은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방식이다.

세대당 대출한도는 농업창업자금 3억원, 주택구입 자금은 7,500만원이다.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 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 및 담보 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신청 대상은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 세대주로서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과 귀농·영농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한 재촌 비농업인이다.

특히 재촌 비농업인의 경우 농업창업자금만 신청 가능하며,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고,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

단,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나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의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지원할 수 없다.

/정읍=김대환 기자

한문연 주관 공모사업 2건 선정 '문화예술 도시' 도약

정읍시, 국비 4100만원 확보 지역예술인 양성·시민 문화 향유 기회 제공

정읍시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이하 한문연)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 2건에 선정돼 국비 4,100만원을 확보했다.

이는 코로나19로 각종 문화예술 분야 공모사업이 축소된 상황에서도 재원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이뤄낸 결실이다.

공모 선정에 따라 시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민들의 문화 향유의 폭을 넓히고 지역예술인 양성과 품격 높은 문화예술 도시로의 도약을 꾀해 나가는 방침이다.

선정된 2개 공모사업은 ▲지역문화예술화관 문화가 있는 날(전통 아동극 '지지배' 등)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시립농악단 연희관 후부리영감과 여섯 도깨비)이다.



정읍시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이하 한문연)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 2건에 선정돼 국비 4,100만원을 확보했다.

'지역문화예술화관 문화가 있는 날'은 지역 공연팀이 11월까지 마지막 주 수요일이 있는 주간 지역 내 학교,

시장 공원 등 다양한 공간에 직접 찾아가는 지역 밀착 맞춤형 공연프로그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전북 유일 인구감소지역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공모 선정

부안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인구감소지역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전북 지치단체 중 유일하게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인구감소지역 주민과 지치단체가 일부지역의 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한 계획을 중앙정부와 협력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년 최대 국비 1억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생활권이란 공공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는 범위의 1개 또는 그 이상의

읍·면·동이나 여러 개의 마을로 구성된 지역으로써 군은 사업대상지를 보안·진사·출포면이 속한 남부안권체 중 유일하게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남부안권 지역 주도 주민협의체 등을 구성하고 지역자원 브랜딩, 주민역량 강화 일자리 창출, 주민공동체 지역 활력 창출, 주민 정착공간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군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주민 주도적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주민역량 강화를 도모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해 나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공모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구감소 위기를 해소하고 부안의 미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부안군은 지난 21일 부안군청 중회의실에서 새롭게 구성된 부안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은 지방세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등 민간위원 13명과 공무원 2명(행정복지국장, 재무과장) 등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군세 이의신청,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모범납세자 선정, 건물 및 기타 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또 지방세 부과·징수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납세자 권익보호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최현옥 부안군 지방세심의위원장은 "부안군의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